

#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trengths on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Happiness  
in Dual-Income Married Couple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박주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ark, Ju-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trengths on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happiness in dual-income married couples. This study included 316 married employees who live in Seoul and have children attending junior high or lower grade schools. A survey was conducted December 1-30, 2018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child care centers, kindergartens, schools, companies, religious institutions, and other location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in this study, the degree of family→work conflict was higher than that of work→family conflict in dual-income married couples, indicating that role conflict at work is greater due to family role pressures. Second, amo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ual-career couples, monthly income, family→work conflict (an independent variable), and family problem-solving skills (a moderating variable; a subcategory of family strengths) had a significant impact.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happiness, the higher the monthly income, the lower the family→work conflict, and the higher the family problem solving ability, the higher the feeling of happiness among dual-income married couples. When the work role conflicts from family life roles were more highly perceived in dual-income married couples.

\* 본 연구는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박주희 (pjh@sungshin.ac.kr)

Moreover, family→work conflict and an interaction term of family problem-solving ability were identified as variable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happiness. Third, family problem-solving ability was identified as a moderator buffering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happiness.

**Key Words** :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Happiness(행복감), 맞벌이 기혼남녀(Dual-Income Married Couples)

## I.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정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45만6천 가구로 유배우자 가구 중 4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이러한 사실은 남녀 모두에게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의 문제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여전히 성별간의 인식차이와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즉 맞벌이 가정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상의 불이익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 맞벌이 가정은 내적·외적으로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김경미, 2018). 맞벌이 기혼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과정에서 직장을 포기하는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흔하며 이러한 선택은 맞벌이 가정의 행복한 삶의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맞벌이 가정의 행복감이 홀벌이 가정의 행복감에 비하여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이주희·이은희, 2000; 정상미, 2013), 맞벌이 가정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조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흔히 행복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 자살, 편집증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Koivumaa-Honkanen et al., 2001) 활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공동체 구성원이 지각하게 되는 행복감의 정도는 국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맞벌이 가정

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규명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학문적·실천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삶의 행복감 또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변인이 가족건강성이다.

가족 건강성이란 가족구성원들이 문제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라나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역할을 의미한다(정현숙·유계숙, 2001). 가정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가정건강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행복한 삶에 실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유계숙, 2004). 실제 가족원과의 유대관계는 개인의 행복 수준에 중요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하진, 2009). 그리고 가족의 건강수준은 삶에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순미, 2004).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가족건강성을 주목하여 행복감과 관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권인나, 2012) 단일 차원이 아닌

가족건강성에서 볼 수 있는 지지적 기능을 하위 요인별로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 증진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기혼남녀에게 적합한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서비스 지원개발에 필요한 학술적·실천적 유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해 봄으로써 보다 행복한 사회 조건을 구성하는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 갈등이 그들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일-가정 갈등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

#### 1) 일-가정 갈등의 개념

일-가정 갈등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일-가정 갈등을 양방향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부모갈등, 일-배우자 갈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직장과의 역할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할갈등으로 보았다(최규현, 2013). Kopelman, Greenhaus & Connolly(1983)는 일-가정 갈등을 직장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방향성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Greenhaus & Beutell(1985)은 일-가정 간의 갈등을 일-가정역할에 대한 요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역할 간 갈등(interrole conflict)의 형태로 한 역할에의 수행이 다른 역할에의 수행을 어렵게 할 때 발생하는 갈등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Gutek, Searle & Klepa(1991)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일-가정 갈등을 접근하였다. 첫째는 직장의 경험이 가정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가정갈등(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으로 이러한 갈등은 장시간 직장에서의 근무로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방해되는 상황으로 설명하였다. 둘째는 가정의 경험이 직장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직장갈등(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FIW)으로 즉,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결근해야 하는 경우처럼 가정에서의 일이 직장에서의 의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처럼 일-가정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는 일-가정 갈등을 연속선상에 있는 단일 차원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선후 관계가 구분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양방향의 갈등을 상호순환관계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되었다(Byron, 2005). 또한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은 서로 간에 그 속성이 상호배제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Mesmer-Magnus & Viswesvaran, 2005).

최수찬 외(2015)의 연구에서도 일-가정 갈등을 일→가정 갈등(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가정→일 갈등(Family Interference with Work)으로 구분하였고, 이지연(2012)의 연구에서도 일과 가정은 각기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고 일-가정 갈등을 직장-가정 갈등(WFC), 가정-직장 갈등(FWC)으로 분리하여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Greenhaus & Beutell(1985)은 일-가정 갈등이란 일과 가정에 관련하여 다중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곤란으로 일과 가정 중 한 영역에서의 경험이 다른 영역으로 영향을 미쳐 시간의 제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 역기능적 행동을 야기하게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을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의 영향을 살펴보겠다.

### 2.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행복감의 개념

행복은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온 만큼 행복의 정의는 다양하다. 행복에 관한 연구는 Diener

(1984)가 1960-1970년 행복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장해진, 2015). 행복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두 가지 차원의 개념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차원의 경험은 삶의 질, 복지, 웰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주관적 차원의 경험은 행복,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로, 갈등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정의된다(곽인숙, 2013).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은 개인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기분과 이상적인 삶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본다(전미영·김난도, 2011).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이란 개인의 기쁨, 만족감, 즐거움의 전반적인 경험과 느낌으로 보고하였다(전미영·김난도, 2011).

Veenhoven(1991)에 따르면 행복은 보편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보편적 개념의 행복에는 삶의 만족도, 욕구충족 및 쾌락수준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 개념의 행복에는 일과 직무만족, 자이존중감 및 통제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하였다. 정상미(2013)는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본질적인 가치와 목표로 정의하였다. 곽인숙(2013)은 행복을 일상적인 삶과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 원만한 가족 간의 관계유지, 자녀의 성공과 행복, 좋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행복감은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일-가정 갈등과 행복감

일-가정 갈등과 관련해서 주로 우울, 삶의 질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 따르면 직장 일로 인하

여 자녀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할 경우의 기혼여성 근로자들은 직장 일의 중단 여부에 대하여 갈등하게 되며 불안, 우울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노성숙·한영주·유성경, 2012; 안소희·최정숙, 2014). 가정생활의 일로 인해 직장 직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의 여성들은 죄책감과 분노, 우울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Brien et al., 2014). 정상미(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혼취업여성들의 경우 일과 가정의 역할수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가정생활에 대한 역할부담과 시간의 제약 등과 충돌한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행복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 친화적 직장의 근무환경이나 조직의 지원 및 태도 등은 일과 가정의 갈등을 조절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이숙정, 2011). 가영희(2006)는 직장내 가정 갈등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가정→직장 갈등을 더욱 높게 경험하고, 가족과 직장의 양쪽 영역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오령과 권정혜(2006)가 기혼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정내의 요구들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가정-직장 갈등은 우울, 불안, 결혼의 불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하는 변인으로, 직무와 양육간의 역할 갈등은 우울, 신체화, 직무 불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하는 변인으로 밝혀다. 다수의 연구들에서도(김성국·박수현·이현실, 2017; 김소정, 2016; 이자명, 2013) 일-가정 갈등이 우울과 관련한 주요변인으로 밝혀져서 일-가정갈등은 행복감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2) 가족건강성과 행복감의 관계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Olson & DeFrain, 2003). 이러한 특성은 가족건강성의 구성요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lson & DeFrain(2003)은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으로 DeFrain &

Stinnett(2002)은 상호간의 존중, 돌봄 제공하기, 의사소통의 기능, 생활 공유도, 정서적 유대감, 도전과 성장 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어은주와 유영주(1996), 오은지(2016)는 가족건강성의 구성요인을 가족 간의 유대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공유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의 구성요소를 가족 간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가치체계공유, 가족 간의 유대로 하여 구성하여 살펴보겠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별로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송인숙(2012)은 가족건강성은 행복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특히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 중 가족의 유대감과 가치관, 의사소통 요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숙(2009)은 자녀는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이룰 때 심리적,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순기(2001)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자녀가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 후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하진(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인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대학생의 행복감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김민경(2012)은 가족건강성 중에서 의사소통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인 가족 간의 유대, 가족 간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 가족의 가치체계는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변인인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경숙·박주현, 2015). 윤대혁(2008)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기혼남녀가 경험하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은 가정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건강성의 수준은 맞벌이 부부와 가족구성원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가정 갈등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로 먼저 성별에 따른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행복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이영호, 2000; 김세련, 2010). 연령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연구(Campbell, 1990)가 있는가 하면, 연령 증가와 삶의 만족도와는 반비례한다는 연구(권태연, 2009)도 있다. 또한 자녀수와 관련해서는 이숙현과 서혜영(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수는 기혼남성의 행복수준과 부적관계를 나타내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혼남성의 행복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상미(2013)는 맞벌이 중년기 부부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수는 배우자 모두 행복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수와 행복수준과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농촌부부를 대상으로 행복도와 가족건강성에 대한 양순미(200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농촌부부의 주관적 행복수준은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정상미(2013)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중년기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이 행복수준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김경미(2018)의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양립과 부부의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변수의 경우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곽인숙, 2013). 다음으로 월소득의 경우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한국의 성인들은 자신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른 일부 연구들에서도(곽금주 외, 2011; 곽인숙, 2013) 월소득이 행복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과 관련해서는 직업은 사회경제적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적 행복감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미석, 1996).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는 직업생활에서의 성취감을 높게 경험하는 성인일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류현주(2012)는 임시 및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무급가족 종사자보다 삶의 질을 더욱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행복수준이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종수와 조희금(2010)은 고용형태와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조미영(2000)는 정규직 종사자가 삶의 질이 높으며 임시직 종사자의 경우 삶의 질이 낮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 소득, 건강, 자녀수, 직업, 고용형태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자녀수보다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취업부부의 일가족 전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해(정영금, 2005) 자녀가 1명 이상이 있고 막내자녀가 중학생 이하인 16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근로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업, 종교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최종 320부를 수거하여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자료로 316명이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1>, 성별의 경우 남성이 34.5%, 여성이 65.5%였으며 연령은 30대가 82.7%, 40대가 17.3%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 49.7%, 전문대졸 22.0%, 대학

원 졸 16.3%, 고졸 12.0%로 나타났고 월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미만 54.0%로 다음으로 400~500만원 미만 20.3%, 500만원 이상이 14.8%, 300만원 미만 11.0%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1명이 72.3%, 2명 이상이 27.7%이다. 건강상태는 상인 집단이 56.9%, 중인 집단이 33.3%, 하인 집단이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65.6%, 없으면 33.7%이며 직업유형은 사무직이 48.2%, 판매서비스직 22.9%, 생산직 18.2%, 전문직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62.0%, 비정규직 38.0%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09	34.5
	여자	207	65.5
연령	30대	253	82.7
	40대	52	17.3
교육수준	고졸	36	12.0
	전문대졸	65	22.0
	대졸	149	49.7
	대학원졸	48	16.3
월 소득	300만원미만	32	11.0
	300-400만원미만	157	54.0
	400-500만원미만	59	20.3
	500만원이상	43	14.8
자녀수	1명	220	72.3
	2명이상	85	27.7
건강	상	180	56.9
	중	105	33.3
	하	31	9.8
직업	전문직	32	11.7
	사무직	148	48.2
	생산직	56	18.2
	판매서비스직	67	22.9
고용형태	정규직	196	62.0
	비정규직	120	38.0
총계		316	100.0

\*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 2. 연구문제

[연구문제1]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 갈등, 가족건강성, 행복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 갈등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행복감

행복감의 수준의 측정을 위한 본 연구의 도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 외(2008)에 의하여 개발된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을 재구성하여 사용한 김경미(2018)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에 대한 만족’,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자녀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여가와 휴식에 대한 만족’, ‘근무환경 및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을 묻는 문항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낮다’ 1점에서 ‘매우 높다’ 5점의 5점 Likert방식을 이용하였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행복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 2) 독립변수: 일-가정 갈등

일-가정 역할 갈등의 측정을 위한 도구는 이옥순(2011)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가족 갈등 척도는 직장생활로 인한 가정생활의 역할 갈등 4문항과 가정생활로 인한 직장생활의 역할갈등 3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평소 가정에서 직장일에 신경 쓰기 때문에 가족들이 싫어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야 할 시간마저 직장일로 뺏기는 편이다’, ‘직장 업무가 과중해서 사 생활을 할 수 없다’, ‘직장 일 때문에 가정일(육아, 요리, 청소,

세탁 등)을 할 수 없다’, ‘가정일 때문에 직장에서 피곤할 때가 있다’, ‘가정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가정일 때문에 상사와 동료의 눈치가 보인다’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방식을 이용하였다. 더욱 높은 점수는 일-가정갈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장 생활로 인한 가정생활의 역할갈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가정생활로 인한 직장생활의 역할갈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으로 나타났다.

### 3) 조절변수: 가족건강성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의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구성은 가족성원 간의 친밀감, 애정, 지지의 정서적인 측면인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관계’ (10문항),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정도와 개방성 그리고 발언을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성원의 문제발생시 대처능력을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능력’(6문항), 가족만의 가치관과 규율에 대한 가족원의 동의를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공유’(9문항) 등으로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이며, 총체적인 가족 건강성 및 각 하위요인별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가족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의 신뢰도는 가족 유대관계 Cronbach's  $\alpha = .88$ , 가족의사소통 Cronbach's  $\alpha = .84$ , 문제해결능력 Cronbach's  $\alpha = .80$ , 가치체계공유 Cronbach's  $\alpha = .72$ 이며 가족건강성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가정갈등, 가족건강

성, 행복감을 분석하기 위해 백분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가정갈등, 가족건강성,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분석을 위한 t-검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2>)

#### IV. 연구결과

##### 1.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 갈등, 가족건강성, 행복감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 갈등, 가족건강성,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가정 갈등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일 갈등’은 2.95(SD=.70)로 ‘일→가정 갈등’ 2.72(SD=.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기혼남녀가 지각하

<표 2> 측정도구의 변수 구성 및 신뢰도 계수

변수		변수정의	측정방법	문항수	신뢰도
독립 변수	일-가정갈등	직장일로 가족과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	전혀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그렇다=5	4	.71
	가정→일 갈등	가정생활이 직장에서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	전혀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그렇다=5	3	.74
종속 변수	행복감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스럽고 편안한 상태	매우낮다=1 낮다=2 보통이다=3 높다=4 매우높다=5	18	.84
조절 변수	<b>가족건강성</b>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가족의 위기나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가족의 신념체계를 포함한 개념	전혀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항상그렇다=5	<b>34</b>	.89
	가족원간 유대			10	.88
	가족원간 의사소통			9	.84
	문제해결 수행능력			6	.80
	가치체계 공유			9	.78
통제 변인		성별(남자=1, 여자=0) 연령(연속변수) 교육(1=고졸이하, 2=대졸, 3=대학원이상) 월소득(연속변수) 건강(1=나쁨, 2=보통, 3= 좋음) 정규직여부(1=예, 0=아니오) 직업유형(1=사무직, 0=기타) 자녀수(연속변수)		9	



는 ‘가정→일 갈등’이 ‘일→가정 갈등’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기혼남녀는 가정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한 일-가정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결과전체 가족건강성은 3.06(SD=.52)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유대 3.14(SD=.66), 가족가치 3.13(SD=.66), 의사소통 2.94(.53), 문제해결능력 2.84(SD=.60)로 나타나 가족유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복감은 3.18(SD=.94)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갈등은 상대적으로 중간값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가족건강성에서는 중간값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하위 영역에서 가족유대, 가족가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영역이 다소 낮은 경향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은 중간값 3 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 2.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Pearson’s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가 0.8이상일 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상관계수가 0.8이하인 것으로 검증되어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에 우선해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 및 VIF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의 위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Dubin-Watson계수 각각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회귀 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일-가정갈등, 가족건강성, 행복감

변인		M(SD)
일-가정갈등		2.72(.86)
가정-일갈등		2.95(.70)
가족건강성	가족유대	3.14(.66)
	가족가치	3.13(.66)
	의사소통	2.94(.52)
	문제해결능력	2.84(.60)
	전체가족건강성	3.06(.52)
행복감		3.18(.94)

<표 4>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가족 유대	의사 소통	문제 해결	가족가치	행복감
일→가정 갈등	1						
가정→일 갈등	.57**	1					
가족유대	-.03	-.05	1				
의사소통	.01	-.03	.52**	1			
문제해결능력	-.04	.01	.58**	.64**	1		
가족가치	.02	-.03	.65**	.69**	.72**	1	
행복감	-.14*	-.14*	.16**	.20**	.17**	.19**	1

\* $p < .05$ , \*\* $p < .01$

〈표 5〉 일-가정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			
	B	$\beta$	공차(VIF)	
(상수)	3.516			
성별 <sup>1)</sup>	.060	.048	.942 (1,061)	
연령	.102	.059	.920 (1,087)	
학력	.004	.003	.771 (1,297)	
월 소득	.124	.176**	.906 (1,104)	
직업유형 <sup>2)</sup>	.009	.007	.835 (1,198)	
자녀수	.036	.091	.812 (1,231)	
건강	.034	.027	.857 (1,167)	
고용형태 <sup>3)</sup>	.087	.98	.656 (1,524)	
일-가정갈등	일→가정 갈등	-.091	-.112	.806 (1,241)
	가정→일 갈등	-.414	-.439***	.412 (2,425)
가족건강성	가족유대	.046	.047	.419 (2,388)
	의사소통	.095	.094	.391 (2,556)
	문제해결	.141	.182**	.829 (1,206)
	가족갈등	.086	.091	.287 (3,481)
adj R <sup>2</sup>		.201		
F		4.130***		
Durbin-Watson		1.773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sup>1)</sup> 남성=1, 여성=0, <sup>2)</sup> 직업유형: 전문직/사무직=1, 기타=0, <sup>3)</sup> 근무형태, 1=정규직, 0=비정규직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갈등과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20.1%이었다. 즉, 월 소득, 가정→일 갈등, 가족건강성의 문제해결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맞벌이 남녀의 일-가정 갈등이 행복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가족건강성 하위 요인별 조절변인 수준에 따른 가정→직장 갈등과 행복감의 평균치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음으로 일-가정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 월 소득, 자녀수, 근무형태, 직업유형, 종교의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들과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가족건강성의 하위 요인인 가족유대, 가족의사결정, 문제해결, 가족가치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2단계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6〉 가족건강성 하위영역별 평균비교

변인		가정→일 갈등		행복감	
		Mean	SD	Mean	SD
가족유대	낮은집단	2.96	.70	3.21	.70
	높은집단	2.94	.58	3.16	.72
t		.32		.50	
가족의사소통	낮은집단	2.96	.69	3.17	.68
	높은집단	2.95	.72	3.19	.84
t		.02		-.18	
가족문제해결	낮은집단	3.05	.71	3.10	.68
	높은집단	2.88	.69	3.26	.72
t		2.01*		1.45	
가족가치감	낮은집단	2.97	.73	3.16	.73
	높은집단	2.94	.69	3.19	.66
t		.43		-.21	

\* $p < .05$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1단계는 통제변인을 투입하였으며 1단계의 설명력은 7.2%( $F=3.141$ ,  $p < .01$ )였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한 변수는 월 소득, 근무형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근무형태가 정규직일 경우 행복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의 분석결과는 설명력은 20.1%였고( $F=4.130$ ,  $p < .001$ ), 설명력이 12.9% 증가하였으며 1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던 정규직은 영향력이 사라지고 월 소득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일 갈등, 문제해결능력이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기혼남녀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으로 인한 일 갈등이 낮을수록 가족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29.0%였고( $F=5.377$ ,  $p < .001$ ), 설명력이 5.1% 증가하였으며 2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월 소득, 가정→일 갈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3단계에서 가정→일 갈등과 문제해결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월 소득과 독립변수인 가정→일 갈등, 조절변수인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가정→일 갈등과 가족간의 문제해결능력의 상호작용항이 행복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가족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 $M > 2.84$ )에서는 가정→직장 갈등의 평균값이 2.88이고 행복감 평균값은 3.26이었다. 가족문제해결능력이 낮은 집단( $M \leq 2.84$ )은 가정→직장 갈등 평균값이 3.05이며 행복감의 평균값은 3.10으로 〈표 6〉, 가족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정→직장 갈등의 평균값은 낮고 행복감 평균값은 높은 것으로 보아 가족문제해결능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정→직장 갈등과 행복감 사이에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간의 문제해결능력은 맞벌이 기혼남녀의 가정생활로 인한 직장생활의 갈등을 조절하여 행복감을 향상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일-가정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공차 (VIF)	B	$\beta$	공차 (VIF)	B	$\beta$	공차 (VIF)
(상수)	2,934			3,516			3,376		
성별 <sup>1)</sup>	.109	.088	.947 (1,056)	.060	.048	.942 (1,061)	.042	.033	.932 (1,074)
연령	.007	.048	.914 (1,094)	.102	.059	.920 (1,087)	.089	.051	.884 (1,131)
학력	-.050	.047	.917 (1,091)	.004	.003	.771 (1,297)	.010	.010	.739 (1,353)
월 소득	.214	.201**	.957 (1,045)	.124	.176**	.906 (1,104)	.143	.186**	.898 (1,113)
직업유형 <sup>2)</sup>	.031	.024	.884 (1,132)	.009	.007	.835 (1,198)	.017	.013	.827 (1,209)
자녀수	.023	.059	.840 (1,190)	.036	.091	.812 (1,231)	.040	.101	.784 (1,275)
건강	.059	.048	.876 (1,141)	.034	.027	.857 (1,167)	.073	.058	.818 (1,222)
고용형태 <sup>3)</sup>	.234	.171*	.935 (1,069)	.099	.101*	.656 (1,524)	.045	.026	.843 (1,187)
일가정갈등				-.091	-.112	.806 (1,241)	-.016	-.021	.638 (1,567)
가정일갈등(a)				-.414	-.439***	.412 (2,425)	-.390	-.414***	.780 (1,282)
가족유대(b)				.046	.047	.419 (2,388)	.055	.056	.395 (2,964)
의사소통(c)				.095	.094	.391 (2,556)	.119	.118	.256 (3,905)
문제해결(d)				.141	.182**	.829 (1,206)	.145	.201**	.337 (2,964)
가족가치(e)				.086	.091	.287 (3,481)	.083	.088	.506 (1,974)
a*b							-.052	-.064	.424 (2,360)
a*c							-.104	-.066	.249 (4,018)
a*d							.468	.231***	.402 (2,486)
a*e							.173	.111	.385 (2,529)
adj R <sup>2</sup>	.072			.201			.298		
F	3.131**			4.130***			5.538***		
Durbin-Watson	1,869			1,773			1,992		

p < .05, \*\*p < .01, \*\*\*p < .001

<sup>1)</sup> 남성=1, 여성=0, <sup>2)</sup> 직업유형: 전문직/사무직=1, 기타=0, <sup>3)</sup> 근무형태, 1=정규직, 0=비정규직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일-가정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입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녀1명 이상이 있으며 막내자녀가 중학생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종 316명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갈등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 기혼남녀의 '가정→일 갈등'이 '일→가정 갈등'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나 가정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한 일에 대한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갈등은 상대적으로 중간값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가족건강성에서는 중간값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 가족원간의 유대관계, 가족원간의 가족가치체계 공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간의 의사소통 능력, 가족간의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영역이 다소 낮은 경향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은 중간값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맞벌이 기혼남녀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으로 인한 일 갈등이 낮을수록 가족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가정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는 통제변인을 투입하였으며 1단계의 설명력은 7.2%였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한 변수는 월 소득, 고용형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의 분석결과는 설명력은 20.1%로 설명력이 12.9% 증가하였으며 1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던 정규직은 영향력이 사라지고 월 소득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일 갈등, 가족간의 문제해결능력이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29.0%로 설명력이 5.1%증가하였으

며 2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월 소득, 가정→일 갈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3단계에서 가정→일갈등과 문제해결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월 소득과 독립변수인 가정→일 갈등, 조절변수인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간의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가정→일 갈등과 가족간의 문제해결능력의 상호작용항이 행복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정→직장 갈등의 평균값은 낮고 행복감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나 가족문제해결능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정→직장 갈등과 행복감 사이에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절변수인 가족간의 문제해결능력은 맞벌이 기혼남녀의 가정생활로 인한 직장생활의 갈등을 높게 지각할 때 조절요인으로 작용하여 행복감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맞벌이 기혼남녀의 가정→일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하위 요인인 가족문제해결능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문제해결능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가족간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갈등의 경우 일→가정 갈등보다는 가정→일 갈등이 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생활의 양립과정에서 겪는 갈등문제는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가정적·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특히 기혼취업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 2018년 15~54세 기혼 여성 취업자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일)을 그만 둔 적이 있는 경험자가 208만 3천명(37.5%)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통계청, 2018). 따라서 여전히 가족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의 갈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었고 더욱 적극적인 가족친화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가족건강성에서는 가족원간의 유대관계가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은지(2016)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은 3.18점으로 김경미(2018)의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행복수준 3.21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수준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병행에서 오는 갈등이 높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가족건강성의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인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정 수준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맞벌이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들 중 월 소득, 고용형태가 행복감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월 소득이 행복감에 강력한 영향 요인임을 규명한 박금주 외(2011), 박인숙(2013)를 지지한 결과이며 또한 고용형태가 삶의 질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조미영(2000), 서중수와 조희금(2010)의 연구를 지지한 결과이다. 이로써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소득이나 안정적 고용형태는 매우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가 및 기업이 함께 소득확대 및 정규직종의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의 차원 중 가정→일 갈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일들로 인해 직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과 분노, 우울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O'Brien et al.,

2014; Judge, Ilies, & Scott, 2006)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기혼남녀가 자녀양육이 가사활동과 같은 가족활동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의무 수행을 방해받는 느낌이 클 때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기혼남녀의 가정→일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학문적·정책적 제언 및 연구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기혼남녀의 특성을 고려한 행복감의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복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행복수준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예를 들어 맞벌이 이윤나 개인적 특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투영된 정교화 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가족형태를 비롯한 직장 근무환경의 다양성을 포함한 연구와 변수의 측정이 보다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맞벌이 기혼남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이 보다 폭넓게 활용하여 행복감 증진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가족건강성의 유용성이 일부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일-가정생활의 양립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조절하는 효과에 관한 성과는 제한적으로 파악되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가족건강성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맞벌이 기혼남녀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의 삶이 보다 만족스럽게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이 결과가 향후 가족복지정책 및 실천에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가영희(2006).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163-186.
- 2) 광금주 · 민하영 · 김영은 · 최지영 · 전숙영 (2011).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 가족의 관계 및 직무만족이 행복심리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 연구, 18(3), 115-133.
- 3) 광인숙(2013). 노인과 예비노인의 가정건강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1), 1-18.
- 4) 국민통합위원회(201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 3.
- 5) 권안나(2012). 가정에 대한 인식과 가정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성인 남 · 여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권태연(2009).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 2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163-196.
- 7) 김정미(2018).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김민경(2012). 남녀대학생의 강점, 가족건강성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47-68.
- 9) 김성국 · 박수연 · 이현실(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267-275.
- 10) 김세련(2010). 사티어 성장모델의 일치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김소정(2016).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일가족갈등과 일가족축진의 통합적 접근. 사회복지연구, 47(3), 161-185.
- 12)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노성숙 · 한영주 · 유성경(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14) 류현주(2012). 직장인의 일과 가족의 균형 및 갈등과 삶의 질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5)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3.
- 16) 박영신 · 김의철(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61-195.
- 17) 박영신 · 김의철(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3), 399-429.
- 18) 백경숙 · 박주현(2015). 가족 건강성, 이성교제 만족도 및 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3), 503-524.
- 19) 서중수 · 조희금(2010). 일-생활균형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비영리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95-104.
- 20) 서하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송인숙(2012).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안소희 · 최정숙(2014). 유자녀 건강가정사의 일, 가족 양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5, 65-94.
- 23) 양순미(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53-172.
- 24) 어은주 ·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25) 오은지(2016).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직무만족이 의미 있는 삶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유계숙(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27) 윤대혁(2008). 맞벌이부부의 가정-직장 균형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 87-109.
- 28) 이상숙(2009).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 특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과 심리적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이숙정(2011).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여성학연구, 21(2), 81-112.
- 30) 이숙현 · 서혜영(2002). 기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직업 및 가족 변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2), 3-30.
- 31) 이옥순(2011). 가족친화제도와 남성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직무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2) 이자명(2013).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대안적 사고 차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3) 이정은 · 이영호(2000). 개인특성,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9(3), 531-548.
- 34) 이주희 · 이은희(2000).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287-303.
- 35) 이지연(2012). 가족친화제도, 조직문화, 일-가정 양립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장해진(2015). 청소년의 자기복합성과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7) 전미영 · 김난도(2011). 재화소비와 경험소비에서 나타나는 소비자행복 수준비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55-75.
- 38) 정상미(2013).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중년기 부부의 직업,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9) 정영금(2005).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13-122.
- 40) 정현숙 · 유계숙(2001).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41) 조미영(2000). 여성의 우울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2) 최규현(2013). 가정-직장갈등이 맞벌이 근로자의 행동과 승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3) 최수찬 · 고수연 · 이지연 · 이희중(2015).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갈등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 직무디스트레스의 역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293-303.
- 44) 통계청(2018). 맞벌이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 45) 하오령 · 권정혜(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과 역할 만족도: 역할 갈등, 완벽주의 및 가족 지지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675-696.
- 46) Byron, K.(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69-198.
- 47) Campbell, J. D.(1990).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48) DeFrain, J. & Stinnett, N.(2002). "Family strength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arriage and family (2nd ed., Edited by: Ponzetti, J. J. 637-642.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Group.



- 49)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2.
- 50)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51) Gutek, B. A., Searle, S., & Kle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4), 560.
- 52) Judge, T. A., Ilies, R., & Scott, B. A. (2006). Work-family conflict and emotions: Effects at work and at home. *Personnel Psychology*, 59(4), 779-814.
- 53) Koivumaa-Honkanen, H., Honkanen, R., Viinamaeki, H., Heikkilae, K., Kaprio, J., & Koskenvuo, M. (2001). Life satisfaction and suicide: A 20-year follow-up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3), 433-439.
- 54) Kopelman, R. E., Greenhaus, J. H., & Connolly, T. F. (1983).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2), 198-215.
- 55)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 56) Mesmer-Magnus, J. R., & Viswesvaran, C. (2005). Convergence between measures of work-to-family and family-to-work conflict: A meta-analytic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215-232.
- 57) O'Brien, K. M., Ganginis Del Pino, H. V., Yoo, S. K., Cinamon, R. G., & Han, Y. J. (2014). Work,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Employed mothers in Israel,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461.
- 58) Olson & DeFrain(2003). *Marriage and the family-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 (New York: McGrawhill Company)
- 59)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34.

- 투 고 일 : 2019년 09월 01일
- 심 사 일 : 2019년 10월 02일
- 게재 확정 일 : 2019년 11월 06일